

보도시점 2023. 9. 20.(수) 9:00 배포 2023. 9. 20.(수) 08:30

'국면 전환자' 양자인공지능 표준특허를 선점하라!

- 특허청, 표준특허 관점에서의 양자 및 인공지능 분야 유망기술 발굴 착수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산·학·연의 연구 개발(R&D)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양자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 발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로, 관련 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됨

** 양자분야: 9.18, 인공지능분야: 9.21

양자와 인공지능은 전 세계 산업 구조와 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파괴적 혁신 기술이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3국간 세계 표준화 협력 대상 기술에도 포함됐다. 현재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 이들 분야의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표준특허 선점 시 관련 시장을 선도할 기회가 열리는 만큼, 특허청은 표준특허 확보 관점에서 유망기술을 발굴해 우리 산·학·연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망기술 발굴은 표준과 특허정보의 종합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표준 반영 가능성, 우리나라의 특허 경쟁력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한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 개발(R&D)·표준화 현장의 시각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착수(9월 말) → 분석(~12월 중순) → 보고서 발간(~12월 말)

특허청은 올해 연말까지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각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함께 실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표준특허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 <http://biz.kista.re.kr/epcenter>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양자와 인공지능은 미래 산업의 ‘국면 전환자’로 불리는 만큼 표준특허를 선점해 시장 영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연구 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책임자	과 장	신원혜 (042-481-8254)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김호영 (042-481-3586)

□ **추진 배경**

- 양자기술과 인공지능은 전 세계 산업 구조와 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現 정부에서도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선정하여 집중 투자
 - * '24년 R&D 예산 16.6% 삭감...국가전략기술 예산은 늘어('23.8.29. YTN)
- 이에, 양자 및 인공지능 분야의 R&D 및 표준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특허 관점에서 유망기술 발굴 추진

□ **추진 내용**

- 특허와 표준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양자·인공지능 분야에서 표준특허 확보가 필요한 유망기술 발굴 및 정보 제공
 - 분야별 세부기술과 관련된 표준화 동향 및 국내·외 특허동향 분석
 - 표준화 단계, 우리나라 표준화 경쟁력*, 표준화 참여자들의 출원 증가율, 우리나라 특허 경쟁력** 등 지표를 활용하여 세부기술별 평가 실시
 - * 해당분야 표준화 전문인력, 의장단 수 등 / ** 출원 규모, 특허의 질적 수준 등
 - 산·학·연 표준/R&D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유망기술 도출
 - 도출된 유망기술 및 유망기술별 표준화·표준특허 확보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

□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